

남녀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박계란* · 이지민**

요 약

본 연구는 D·G지역의 남녀 대학생 286명(남: 129명, 여: 15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와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성격특성척도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홍성희(2002)의 부모양육태도척도로 4가지 하위영역인 온유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남녀성별에 따라서는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신경증의 경우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 외향성은 어머니의 온유적인 양육태도, 친화성과 성실성에는 아버지의 온유적인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며, 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나아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온유·허용적인 양육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성격특성, 부모양육태도, 대학생

논문투고일 : 2012. 5. 31

최종심사일 : 2012. 7. 13

게재확정일: 2012. 7. 20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박사수료

** 영남대학교 가족주거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 Lee, Ji-Min,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712-749, Republic of Korea. E-mail: ljimin@ynu.ac.kr

I. 서론

인간은 일련의 사건을 경험할 때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하고 반응한다.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행동양식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규정되는 성격에 의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성격은 한 개인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독특한 사고, 감정 및 행동양식으로 개인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행동패턴 및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내적 과정을 의미한다(Burger, 2000; Phares, 1984). 개인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Cloniger et al., 1993), 기질을 구성하는 기본 경향성들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난다. 타고난 초기의 기질적 특성은 환경적 경험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Goldsmith, Campos, 1990; Gunnar, Nelson, 1994) 성장과정에서의 경험, 주변 환경의 영향과 함께 작용하여 성격의 틀을 이루게 된다(윤미선, 2011).

자녀의 성격은 환경적 요인 중 특히 가정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Erickson, 196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타고난 성향이 결합하여 관계의 특징을 규정하고, 이것이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Scharff, 1996).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환경적 요인 즉 가정에서의 부모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면서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배워 나가는 곳으로, 가정의 물리적 환경보다는 가족 구성원간의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심리적 환경이 인간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 중 자녀의 정서 및 성격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이승화, 2001).

자녀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이며(Becker, 1964), 개인마다 다른 정서 및 성격특성을 가지는 이유를 양육태도의 상이함에 있다고 Sears(1965)는 지적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람으로, 자녀들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고 자신의 역할을 인식한다. 또한 부모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되고, 인간관계, 사고 및 행동 등을 결정하는 자아가 형성된다(장휘숙, 2000; 최옥희, 2007).

대상관계이론에서 아동의 성격형성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외부대상으로 어머니를 꼽았으며, Freud 역시 초기에 부모와 맺는 관계가 아동의 성격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이나영, 2007).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끝나

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Gitelson, McDermott, 2006).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동기 뿐 아니라 자녀가 성인이 된 후의 행동이나 정서 및 인격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이은아, 2009; 최경옥, 2004).

자녀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등 모든 발달단계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인순, 2010; 김정희, 2008; 박귀화, 2001)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때 자율성, 성취성, 안정성, 사회성 등 아동의 성격 특성 대부분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상림, 2005; 이승화, 2001; 정효미, 2009)는 애정·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안정, 인내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 사회적응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Kerns와 Stevens(1996)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남학생은 높은 자아탄력성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장휘숙(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모델을 지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이 낮고 외향성과 친화성이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게 나타났다. 조영란(2005)은 여자 중학생이 개방성과 친화성, 성실성에서 남자 중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박귀화(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아동이 신경증에서, 여자아동이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윤미선(2011)의 연구에서는 여자대학생이 신경증과 친화성에서, 남자대학생이 성실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균(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가 남자청소년의 친화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적인 태도에 의해 개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그들의 성격특성이 부모와의 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성격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기로의 전환점에 있는 대학생들의 혼란과 갈등 상황에 대한 연구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Gitelson, McDermott, 2006).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관한 연구들(김보경, 민병배, 2006; 유가호, 박선주, 2004; 이승화, 2001; 정은균, 2007)이 대부분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곽윤영, 정문자, 2010; 손희정, 2005; 우영지, 이기학, 2007; 윤미선, 2011)중에서도 부모

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을 함께 살펴 본 연구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청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들은 청소년기가 끝나고 성인이 되는 첫 단계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진로와 취업, 대인관계 및 사회 적응 등의 향후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한다. 따라서 행동양식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를 청년기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Costra, McCrae, 1992)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차원을 외향성(Extraversion),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Neuroticism)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외향성(Extraversion)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다.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방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며 상식이 풍부한 특성을 보인다. 친화성(Agreeableness)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로 친화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협조적, 관대함, 세심한 배려를 하는 이타적 특성을 지닌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 등을 열심히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며, 성실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일을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고, 신중하며, 책임감이 강하다.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불안정, 환경에 대한 민감성, 불안감, 긴장의 정도로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은 걱정이 많고, 불안, 우울하며, 화를 잘 내는 특징이 있다(Costra, McCrae,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격이 타고난 기질과 환경적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Gunnar, Nelson, 1994)에 근거하여 5요인 성격특성과 부모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성격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격특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G지역의 남녀 대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 129명(45.1%)과 여학생 157명(54.9%)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남학생이 23.1세, 여학생이 21.5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성격특성

대학생의 성격특성척도는 Goldberg(1999)가 개발한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를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PIP는 개인의 성격을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oversion), 개방성(Openness, Openness to Experience),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요인 당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50문항이다.

신경증에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와 같은 문항, 외향성에는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이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방성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친화성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둔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성실성에는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 한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성격특성의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신경증이 .85, 외향성이 .82, 개방성이 .77, 친화성이 .79, 성실성이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양육태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홍성희(2002)의 부모양육태도척도로 4가지 하위영역인 온유한,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온유한 양육태도에는 ‘부모님은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하셨다’, ‘부모님은 내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다’와 같은 문항이, 독재적인 양육태도에는 ‘부모님의 생각대로만 하기를 강요하셨다’, ‘부모님은 내 잘못에 대해 지적하시는 점이 많았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허용적인 양육태도에는 ‘부모님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항상 자유를 주셨다’, ‘부모님은 나의 모든 것을 수용하셨다’, 방임적인 양육태도에는 ‘부모님은 내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셨다’, ‘부모님은 나에게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으셨다’와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자신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별 5개의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양육태도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온유한 양육태도가 .89, 독재적인 양육태도가 .85, 허용적인 양육태도가 .82,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D·G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회수하였다. 배부된 총300부의 설문지 중 일부 자료가 미비한 14부를 제외한 286부(남학생 129명, 여학생 157명)만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처리 과정을 거쳤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성격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자	129(45.1)	모 학력	고졸이하	211(73.8)
	여자	157(54.9)		대졸이상	74(25.9)
학년	1학년	40(14.0)	전공	인문/사회	98(34.3)
	2학년	41(14.3)		이공	124(43.4)
	3학년	69(24.1)		사범/예체능	59(20.6)
	4학년	133(46.5)		전문/관리직	42(14.7)
출생순위	첫째	132(46.2)	부 직업	사무직	87(30.4)
	중간	85(29.7)		판매/서비스/생산	91(31.8)
	막내	47(16.4)		무직/기타	6(2.1)
	외동	18(6.3)			
부 학력	고졸이하	150(52.4)	모 직업	유	123(43.0)
	대졸이상	134(46.9)		무	132(46.2)

* 무응답의 경우 결측치 처리를 하였으므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2.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신경증($t=-3.69$, $p<.001$), 외향성($t=-2.17$, $p<.05$), 성실성($t=2.21$,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 보다 신경증($M=3.00/SD=.69$)과 외향성($M=3.42/SD=.63$)이 더 높은 반면, 남자 대학생들은 여자 대학생들 보다 성실성($M=3.38/SD=.55$)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

구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i>M(SD)</i>	<i>M(SD)</i>	<i>M(SD)</i>	<i>M(SD)</i>	<i>M(SD)</i>
성별	남	2.71(.60)	3.26(.65)	3.25(.49)	3.56(.52)	3.38(.55)
	여	3.00(.69)	3.42(.63)	3.26(.51)	3.59(.48)	3.23(.57)
	<i>t</i>	-3.69***	-2.17*	-.16	-.46	2.21*

* $p<.05$. ** $p<.01$. *** $p<.001$.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대학생의 신경증은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r=-.14$, $r=-.12$), 부의 독재적인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r=.1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r=.14$, $r=.22$), 친화성($r=.30$, $r=.34$), 성실성($r=.25$, $r=.27$)은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와는 정적상관, 외향성($r=-.13$, $r=-.17$), 친화성($r=-.15$, $r=-.29$), 성실성($r=-.19$, $r=-.17$)은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온유적인 양육태도를 취할수록 대학생 자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롭고, 사교적이며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처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주요변수간의 상관관계

부 모	1	2	3	4	5	6	7	8	9
1	1.00	-.26*	-.04	-.28*	-.12*	.22**	.04	.34**	.27**
2	-.29*	1.00	-.29*	-.27*	.11	-.02	.02	-.03	-.04
3	-.01	-.40*	1.00	.40**	-.05	.01	.01	-.10	-.01
4	-.33*	-.15*	.38**	1.00	.09	-.17**	-.06	-.29*	-.17**
5	-.14*	.14*	-.09	.11	1.00	-.16**	.17**	-.17**	-.16**
6	.14*	.05	-.07	-.13*	-.16**	1.00	.28**	.49**	.29**
7	.02	.07	-.05	-.05	.17**	.28**	1.00	.21**	.26**
8	.30**	-.04	-.08	-.15*	-.17**	.49**	.21**	1.00	.38**
9	.25**	.07	-.10	-.19*	-.16**	.29**	.26**	.38**	1.00

* 대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부분은 모양육태도, 왼쪽 아래부분은 부양육태도임

* $p < .05$. ** $p < .01$

1: 온유한 양육태도 2: 독재적인 양육태도 3: 허용적인 양육태도 4: 방임적인 양육태도

5: 신경증 6: 외향성 7: 개방성 8: 친화성 9: 성실성

4. 부모양육태도가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경증의 경우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beta = .14, p < .05$)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성격적으로 예민함을 알 수 있다. 신경증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부 양육태도가 5%, 모 양육태도가 4%였다.

외향성은 부의 온유한 양육태도($\beta = .14, p < .05$)와 모의 온유한 양육태도($\beta = .19, p < .01$)와 방임적인 양육태도($\beta = -.15,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방임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온유적일수록, 자녀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성격특성을 가짐을 의

미한다. 외향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7%였다.

친화성의 경우 부의 온유한 양육태도($\beta=.30, p<.001$)와 모의 온유적($\beta=.27, p<.001$), 방임적인 양육태도($\beta=-.21, p<.01$)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의미하는 친화성의 경우 아버지의 온유한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친화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10%,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15%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부와 모의 온유한 양육태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는데, 어머니($\beta=.24, p<.001$)보다 아버지의 온유한 양육태도($\beta=.27, p<.001$)가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원칙에 맞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성실성에는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실성에 대한 전체변수의 설명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9%였다. 반면, 개방성은 어떠한 변인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격특성의 영향요인

구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B	β	B	β	B	β	B	β	B	β
부 양 육 태 도	온유	-.06	-.06	.12	.14*	.02	.03	.20	.30***	.23	.26***
	독재	.08	.10	.05	.07	.04	.07	.01	.03	.09	.12
	허용	-.10	-.10	-.02	-.02	-.01	-.01	-.03	-.05	-.02	-.02
	방임	.13	.14*	-.06	-.07	-.02	-.03	-.02	-.03	-.07	-.08
	R^2	.05		.03		.01		.10		.09	
	F	3.33*		2.33		.49		7.62***		7.19***	
모 양 육 태 도	온유	-.06	-.05	.18	.19**	.02	.03	.20	.27***	.24	.24***
	독재	.11	.11	.01	.01	.01	.02	-.01	-.02	.01	.01
	허용	-.08	-.08	.07	.08	.02	.03	-.01	-.01	.05	.06
	방임	.16	.14*	-.15	-.15*	-.05	-.06	-.16	-.21**	-.12	-.12
	R^2	.04		.07		.01		.15		.09	
	F	2.65**		5.08**		.34		12.60***		6.66***	

* $p<.05$. ** $p<.01$.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D·G지역의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성격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대학생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남녀성별에 따라서는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신경증은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 부의 독재적인 양육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은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와는 정적상관,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와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특성 중 신경증의 경우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 외향성은 어머니의 온유한 양육태도, 친화성과 성실성에는 아버지의 온유한 양육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의 경우 부 양육태도에서 5%와 모 양육태도에서 4%, 외향성의 경우 모 양육태도에서 7%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성의 경우에는 부 양육태도에서 10%, 모 양육태도에서 15%, 성실성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대학생 자녀의 성격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 신경증과 외향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남자 대학생은 성실성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기질적으로 남학생보다 환경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증적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사람사귀기를 좋아하는 외향적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자 대학생의 경우 대학졸업 후 자신의 진로와 취업 준비를 위해 성실하게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에 성실성이라는 성격적 특성이 높게 나타났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대학생이 신경증과 친화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남자 대학생이 성실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 윤미선(2011)의 연구와 여자 중학생이 개방성과 친화성, 성실성에서 남자 중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난 조영란(200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박귀화(2001)의 연구에서는 남자아동이 신경증에서 더 높게 나

타나고, 여자아동이 친화성, 개방성, 성실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온유한 양육태도는 외향성에 아버지의 온유한 양육태도는 친화성과 성실성에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에서 아버지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보다 어머니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외향적이고 친화적인 성격특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특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여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해 타인에게 호감을 가지며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개방적이고 친화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너무 통제적이거나 거부와 방임으로 자녀를 대할 시에는 자녀가 우울, 두려움, 적대감, 충동성 등의 감정을 가지게 될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개방성과 친화성에 정적으로, 신경증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박귀화, 2001; 이나영, 2007; 정은균, 2007)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자녀의 성격특성은 성별에 따라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학생 자녀의 성격특성 요인 중 신경증에는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친화성과 외향성, 성실성에는 부·모의 온유한 양육태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그들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성인기로의 전환기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과 나아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온유·허용적인 양육태도,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가 대학생들의 성격특성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임을 밝히는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동기 및 청소년기와 청년기인 대학생 시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사회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성교육·상담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대상들이 주로

유·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집중되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대학생들의 성격특성 연구를 위한 선행 자료로써 활용가치를 두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만을 살펴보았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심리적 변인 등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자기보고식 질문지 방법 이외에 면접이나 관찰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함께 병행하는 것과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진로, 사회적 관계 등 여러 변인들의 관계구조를 파악하는 등 좀 더 확장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보경, 민병배(2006). 청소년 우울과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 기질 및 성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25(1), 221-236.
- 김인순(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성격특성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8).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안정성과 성격특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윤영, 정문자(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대학생의 경제적 자립도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및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21-141.
- 박귀화(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5요인 성격구조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희정(200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심리사회 성숙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지, 이기학(2007).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상담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 유가효, 박선주(2004). 부모의 성격 및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9(1), 101-116.
- 유태용, 이기범, Ashton(2004). 한국판 HEXACO 성격검사의 구성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61-75.
- 윤미선(2011).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 및 성격특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9(2), 101-111.
- 이나영(2007).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 및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립(2005).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화(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육연구*, 20, 85-104.
- 이은아(2009). 청소년의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심리적 및 행동적 부적응.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0). 애착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2). *한국심리학회*, 13(3), 141-157.
-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가지 (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발달*, 14(2), 105-119.
- 조영란(2005). 5요인성격특성과 대인관계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균(2007). 부와 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5요인 성격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3), 79-110.
- 정효미(2009).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희(2007). 생태학적 변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희(2002).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Hoffmann & L. W. Hoffmann, vol. 1, N. Y. : Russel Sage. 169-208.
- Burger, J. M.(2000). *Personality(5th ed.)*.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1993).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0, 975-990.
- Costra, P. T. Jr., & McCrae, R. R. (1992). NEO Personality Inventory Revised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Odessa, FL.
- Eric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Gitelson, I .B., & McDermott, D.(2006). Parents and their young adult children: transitions to adulthood. *Child Welfare*, 85(5), 853-866.
- Goldberg, L. R. (1999). A broad-bandwidth, public domain, personality inventory easuring the lower level facets of several five-factor models. In I. Mervielde, I.
- Deary, F. De Fruyt, and F. Ostenderf(Eds.), *Personality psychology in Europe*, Vol. 7(pp.7-28). Tilburg University Press: The Netherlands.
- Goldsmith, H. H., & Campos, J. J. (1990). The structure of temperamental fear and pleasure in infants: A psychometric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1, 1944-1964.
- Gunnar, M. R., & Nelson, c. A. (1994). event-related potentials in one year-old infants: Relations with emotionality and cortisol. *Child Development*, 65, 80-94.
- Kerns, K. A., & Stevens,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3), 323-342.
- Phares, E. J.(1984). *Introduction to personality*.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Scharff, D. E. (1996). *Object relations theory and practice* : An introduction. NorthvaleN. J. : J. Aronson.
- Sears, R. R. (1965).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 Y. : Harper & Row Publishers, Inc.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Park, Kei-Ran* · Lee, Ji-M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y trait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of parenting attitudes and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86 college students (129 of male and 175 of female students) and included measures of parenting attitudes scale and the 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heir gender. Second, mother's and father's neglige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llege students' neurosis. Mother's gentleness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llege students' extroversion, while father's gentleness had effects on their friendliness and sincerity.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mother's parenting attitudes explained total 7% of college students' extroversion, 15% of friendliness, 4% of neurosis, and 9% of sincerity. Father's parenting attitudes explained total 5% of college students' neurosis, 10% of friendliness, and 9% of sincerity. However, the parenting attitud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college students' open-mi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ing attitudes are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person's personality. Also, the study implies that understanding of the influences of parenting attitudes on college students' personality trait is required for better and healthier school and socia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Key Words : Childminder's Educational Belief, Consciousness of Professionalism, the Quality of Child-care

* Doctoral Candidate,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mily and Housing Studies, Yeungnam Univ.